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2.07+08

통권 제112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2년 7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강력한 체질 개선으로 생산성 극대화
대한민국 리딩뱅크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갖춘 금융기관으로 성장

머리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7·8월 프로그램

Issue & Seminar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정병국 한국3M(주) 사장

TPT 멘토대학

Hot & Issue

— 강릉시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직원 CS 연수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2

Special Focus 2012 소통아카데미 2·3기

회원&연구원 소식

아카데미뉴스

2012 제주 CEO 섬머포럼

명사초청특강 유태식 일본 MK그룹 부회장

발행인편지

이인식칼럼



세상을 밝히는 힘!

치매 치료제 전문메이커 한국파마가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제약기업들과의 경쟁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왔습니다.
醫藥劑民(의업제민)의 굳은 믿음 하나로 38년을 걸어온 한국파마 전 가족은 “인간존중·천직관념”을
바탕으로 우수한 의약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일렉스 정

(메만틴염산염)

비정형 항정신병제

쿠에티 정
25/100/200/300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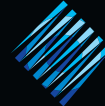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치매 치료제

바스티아 정 5/10mg

(도네페릴염산염)

조현병 1차 선택 약물



오지팩스 정 10mg

울란자핀


(주)한국 파마
KOREA PHARMA CO., LTD.

www.koreapharma.co.kr | 제품문의 : 마케팅부 02)558-1277

자존심

지난해 국제연합은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세계에서 12위로 발표했다. 프랑스나 스위스보다 앞선 것이다. 유아 사망률, 문자해독률, 의료수준, 교육수준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 학문, 기술,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은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매우 뒤떨어진 분야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도덕적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해 한국의 투명성을 세계에서 43위로 발표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32위보다도 11위나 뒤지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선진국이지만 도덕 및 정치와 같이 도덕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들에서 한국은 보츠와나보다 뒤떨어진 후진국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높아져야 다른 분야들도 더 발전할 수 있다.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제도개선, 교육, 시민들의 감시, 합리성, 종교, 개인의 양심 등이 동원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자존심을 더하고 싶다.

자존심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것인데, 교만과는 다르다. 교만이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자존심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와 품위를 지키고 대의명분을 중요시한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비겁하지 않다. 작은 이익을 위하여 옳지 못한 것과 타협하고 체면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런 사람은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도덕이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부당하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를 당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다. 부패가 심하면 돈, 권력, 배경이 있는 사람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약한 사람은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이다. 뇌물이란 가난한 사람의 돈을 부자에게 갖다 주는 것이라고 지적인 학자가 있다.

물론 강한 사람들도 비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가끔 손해를 보지만 그들이 보는 손해는 대부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나 약자들은 쉽게 손해를 볼 뿐 아니라 대부분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 따라서 모든 비도덕적

인 행위는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비겁함의 전형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을 우리는 비겁한 인간이라 한다.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사람을 비판하고 경멸하는 것은 그가 약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비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의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지만 특히 약한 사람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경멸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비겁해야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야만적이지는 않다. 이제 한국인들도 자존심을 가질만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의젓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을 존경하고, 작은 이익을 위하여 비겁한 사람들을 경멸할 권리가 있다. 뇌물을 주고받으며 불법을 자행하는 자는 약한 사람의 팔을 비틀며 이익을 뜯어내는 비겁자들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한 우리 사회는 정의롭게 될 수 없고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없다. **손봉호**

● 손봉호 교수



1938년생으로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 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거쳐 한성대 이사장, 동덕여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칸트철학회 회장,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철학회 회장,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

건강 100세 시대와 성체줄기세포

제1747회 7월 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최근 바이오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사 역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건강은 100세 장수 시대에 있어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지방조직을 뽑아낸 뒤 그 조직을 줄기 세포로 배양, 손상된 조직과 장기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성체줄기세포 치료법은 특히 면역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어 제4세대 재생의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지방 줄기세포(stem cell) 계대배양 공정'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노벨생리의학상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던 알앤엘바이오의 라정찬 회장은 "줄기세포 연구는 과학 분야에서 의학 분야로 넘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의료계는 줄기세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줄기세포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국내의 경우 앞선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난치병 환자의 줄기세포 시술 성공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안 의술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00년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손상 질환 및 난치병 개발을 목표로 설립돼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 새 장을 열고 있는 알앤엘바이오의 라정찬 회장을 초빙하여 자가 성체줄기세포 기술을 통한 건강 100세 시대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라정찬 (주)알앤엘바이오 회장



서울대 수의학과 졸업 | 서울대 수의학 석사 | 제주대 수의학 박사 | 알앤엘줄기세포기술원 원장 | 베데스다병원 이사장 | 극동 Art TV 대표이사 | 서울대 수의과 대학 겸임교수 |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재단 이사 | 베데스다생명 재단 설립자 | (재)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 | Febc 극동방송 감사

〈상훈〉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영실 한국과학 기술대상, 한국 기독교 학술상, 5.16 민족상과 학기기술개발부문 외

〈저서〉고맙다 줄기세포

재스민 혁명 이후 중동의 미래와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1748회 7월 1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근 중동에 민주화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다. 80여 년 전만 해도 아랍은 언어, 종교, 종족 정체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였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개별 국가로 분리됐고, 대부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주의 또는 왕정체제를 채택했다.

이슬람 문화권은 15억 명, 57개국으로 전 세계의 4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한 문화권이지만 정작 우리는 이슬람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여성들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있으며, 언제 어떤 폭력사태와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는 선악이나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같고 다름의 문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전 세계의 4분의 1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방향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왜곡되지 않은 이슬람의 모습을 통해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뛰어넘어 보다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최고 이슬람 전문가로 꼽히는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이슬람문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혼란스러운 중동의 정세를 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외대 터키어학과 졸업 | 한국외대 중동지역학 석사 | 터키 이스탄불대 역사학 박사 | 튀니지 사회경제연구소(CERES) 연구원 | 세계이슬람회의기구(OIC) 이슬람역사문화연구소(IRICA) 연구원 | 이스탄불 마르마라대 중세사학과 교수 | 미국 워싱턴대 교환교수 | 한국터키친선협회 사무총장 |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사회통합단장

〈상훈〉한양대 Best Teacher, 사법60주년 기념 대법원장 표창

〈저서〉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9.11 테러 10년과 달라진 이슬람세계, 이슬람과 한국문화, 끝나지 않은 전쟁, 어린 이 이슬람바로알기, 터키사, 세계문화기행, 지중해문화기행 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 美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책학 석사 | 경제대 경제학 박사 |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산업자원부 철강금속과장, 기초소재산업과장, 공보관, 산업기술국장 | 주미 대사관 참사관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 지식경제부 제1차관 | 법무법인광장 교문 | 국무총리실장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방향

제1749회 7월 1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1세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의료발전으로 사망률은 해마다 줄고 있고, 더불어 출산율 또한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벌어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국가 총인구수의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인력의 감소, 사회인구의 세금 증가 등 사회위험 비용과 더불어 한창 도약을 위한 국가성장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 의료복지의 문제도 심각하다. WHO에서는 노령인구의 문제 중 하나로 노인 치료의 문제점을 다룬 리포트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나타나는 출산 기피 현상에 주목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직장생활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탁아시설 부족도 문제다. 최근 독신 중심의 생활패턴과 부부 중심의 가치관도 이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은 많은 문제점과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빙하여 저출산·고령 사회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정부와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저출산·고령화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August

매주 목요일 07:00~09:00

2012 시대정신과 새로운 리더십

제1750회 8월 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과 탈이념의 시대에 발맞춘 변화와 창조정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기초광역의원리의 경우 22년이 되었고,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 또한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금 주민들을 위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자치제 덕분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을뿐더러 분권은 세계사적 흐름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지금 우리 사회는 열린사회로 가지 않고 역으로 닫힌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논어의 계씨편에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이라는 구절이 있다.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한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뜻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안한 민심과 양극화의 경제상황에서 이 시대에 갖추어야 할 리더의 핵심 덕목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장에서 군수, 장관, 도지사까지 역정의 시간을 거쳐 온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초빙하여 민생문제, 양극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등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과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동아대 명예정치학 박사 | 경남 남해군수 | 행정자치부 장관 | 지방분권연구소 이사장 | 자치분권연구원 소 상임고문 |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고문 | 포스트서울포럼 대표 | 노무현 대통령 정부특보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 (사)민부정책연구소 이사장

〈상훈〉 환경운동연합 녹색공무원상, 동아대 자랑스런 동아인상, 매경 환경부 환경경영대상, 자랑스런 경남포럼인상

〈저서〉 남해군수 번지점프를 하다, 빗자루를 든 이장, 김두관의 지방자치 이야기,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아래에서부터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美 UC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 UC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교수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장, 기획실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한민족복지재단 법인이사 | 한민족 어린이들이 네트워크 공동대표

〈저서〉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공),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공역),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공), 일본은 회생하는가(공), 전후한일관계의 전개(공) 외

12.19 대선 전망과 한국정치의 과제

제1751회 8월 1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0세기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 민족은 주권을 상실했고, 일제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다. 해방 후에도 동족상잔의 전쟁, 독재, 혁명, 쿠데타, 권위주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해 비극은 계속되었다.

북한은 지금도 이 비극적인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실패와 후퇴를 반복하며 지난 50년 동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한국이 이뤄낸 괄목할만한 성장에 비해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그 무엇'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 그 무엇에 대한 의문을 둘러싸고 벌어질 정치적 토론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선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

을 이끌어갈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12월 치러질 대선을 전망해보고,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황과 과제들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공유가치 창출과 동반성장

제1752회 8월 2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나무가 없다면 숲은 존재할 수 없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의 시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 되어 더불어 성장한다면 경제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에 활력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민간 부분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의 문화를 조성, 확산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가치체계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 2차·3차 협력업체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시대의 산업은 융합과 복합이 어우러져 급격한 격변을 이룰 정도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데 얹히게 되었고, 이에 세계의 많은 유수 기업들은 협력으로 이러한 흐름에 잘 대처해나가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초빙하여 ‘동반성장에 패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이념 아래 사회적 협력이라는 선진인프라를 우리의 경제주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UCLA 경제학 석사 | 미국 Texas A&M 경제학 박사 | 미국 Clark 대, 버지니아주립대 교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부총장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한국경제학회 회장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BBB KOREA 회장

이기수 양형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상법 석사 | 獨 튀빙겐 에버하르트 칼스대 상법 박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장, 명예교수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한일법학회 회장 |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회장 |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객원석좌교수

〈상훈〉 러시아정부 푸쉬킨 메달, 제19회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교육부문), 독일연방공화국 대십자공로훈장, 한국법률문화상 외

선거범죄의 양형기준

제1753회 8월 3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오늘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써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이렇듯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수단이기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과제이며,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행위에 대해 특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등 악성 선거범죄를 엄단하는 취지의 양형 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후보매수, 기부, 비방, 부정선거 등 4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고를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조화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의결하면 이후 본격화할 4·11 총선 사범 재판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형위원회의 이기수 위원장을 초빙하여 강화된 선거범죄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양형 기준안의 실효성 및 보완점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73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한류’라는 단어는 1999년 북경에 있는 〈청년보〉라는 잡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97년 당시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되었는데, 앙코르까지 포함하여 총 10억 명의 인구가 시청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보〉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큰 영향력에 대한 우려로 한류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그 후 ‘겨울연가’와 ‘내 이름은 김삼순’ 등의 드라마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한일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일본과 동일한 위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동지방까지 그 인기가 확산되면서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86%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급상승하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우려한데서 시작된 ‘한류’

한류의 인기는 국립중앙박물관장 재직 당시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페르시아문명전을 진행할 당시, 오프닝 행사 때 이란 문화부 장관에게 축사를 부탁드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오겠다는 답신과 함께 드라마 ‘대장금’의 여주인공인 이영애 씨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중동에서는 이영애 씨가 ‘이나라자’라고 불릴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

그러나 스케줄 조정 문제로 이영애 씨 대신 한 상궁 역할의 양미경 씨와 이란의 부통령이 행사를 진행했지만 한국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큰 경험이었다. 또한 사극이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극중

에 나오는 옷, 임금에 대한 충성, 효도, 한옥, 한국 음식 등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중동에서 '대장금', '주몽'과 같은 사극이 인기를 끈 이유가 있다.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맨살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여기에 왕국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깃들여진 내용이 주가 되다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나오는 우리나라 사극과 같은 드라마가 필요했던 것이다.

반면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시대보다 전쟁 등의 칼싸움이 많은 삼국 시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이것은 '지역마다 무엇을 선호하는지' 한류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라마에 이은 K-Pop 한류, 유럽에 진출하다

한국 드라마는 1997년부터 시작해 10년 이상을 프로모션해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안타깝게도 유럽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드라마의 한계를 넘은 것이 K-Pop이다. K-Pop은 2011년에 등장해 단기간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처음 파리 공연을 기획할 당시만 해도 국내의 대형기획사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지만 파리, 런던에서 성공한 이후로 지금은 중남미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의 한류를 보고 있으면 마치 20~30년 전 비틀즈, 클리프 리처드, 마이클 잭슨 등에 열광하고 팝송을 외우는 우리의 옛 모습이 떠오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모스크바 출장을 갔을 때 특별한 데모를 경험한 적이 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더니 한국에서 문화부 장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500여 명이 나와 러시아에서도 K-Pop 공연을 개최해 달라며 2NE1, 윈터걸스 등 걸그룹 복장을 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플래시몹(flash mob) 형태의 데모를 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러시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이 너무나 유창했다.

K-Pop 인기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한국말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올해 모스크바 한국문화원에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500명에서 1,300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K-Pop의 인기가 엄청난 것은 드라마는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지만, K-Pop은 유튜브 등을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남미 지역까지 빠른 시간에 전파가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의 발전된 IT 기술과도 연결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세종학당'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드라마는 방송국이, K-Pop은 기획사가, 그리고 정부는 세종학당 또는 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욕구와 한국문화에 대한 열기를 채워주는 것이 할 일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재단이 그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특별재단으로 세계 곳곳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보낼 예정이다. 한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로 정하는 것인



데, 장관에 취임하고 관련법이 통과되어서 보람을 느낀다. 이처럼 K-Pop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국어, 한국의 의식주와 의료, 관광까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K-Pop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과거 J-Pop 매니저 일을 하다가 지금은 200~3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K-Pop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일본인에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에게 K-Pop과 J-Pop의 차이점을 물었더니 그는 "K-Pop은 일본에는 없는 춤추고 뛰는 다이내믹함이 있다"고 대답했다.

고대사를 연구한 사학자인 나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 고대 축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다이내믹을 고대 한국사에서 그 뿌리를 찾아내었다. 삼국지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는 축제 장면이 묘사돼 있는데, '무리를 이루어 노래하고 춤췄다(集團歌舞)', '손과 발이 맞닿았다(手足相應)', '땅에서 경충 뛰어올랐다(踏地低抗)'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그대로 풀면 무리를 지어 춤추고, 손과 발이 맞닿고, 경충 뛰어오르는 등 춤을 출 때의 모습이다. 농악도 집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며, 궁중무용도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통에서 유래되었다. 그런데 K-Pop이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발레 등 북쪽 국가들의 춤은 발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쪽의 타이와 인도는 손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사용한다. J-Pop에서도 물론 집단가무와 수족상응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답지저항은 오로지 K-Pop에서만 볼 수 있다. 이것이 한류 K-Pop의 다이내믹함을 완성시킨다. 한류를 간단히 '보세가공품'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다.

드라마, K-Pop, 뽀로로... 그다음 한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류의 의미는 K-Pop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국의 음식, 의류, 만화, 관광, 의료 등 전반에 걸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를 한류의 1.0이라고 한다면 K-Pop은 한류 2.0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류 3.0으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 이제는 드라마나 음악 등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된



최광식 장관을 맞이하는 장만기 회장



문화적인 상품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 가능성 중의 하나가 캐릭터 상품이다. 바로 '뽀로로'와 '폴리'이다. 어린이들에게 뽀로로는 대통령, 폴리는 총리라고 불

릴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단순한 캐릭터에 그치지 않고 공산품과 테마파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넘어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다음은 음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근짱'이라고 불리는 '장근석 막걸리'가 유행이다. 한류스타가 제조업과 관련해서 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앞으로 한류 3.0은 'K-Cultur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가장 유망한 분야가 바로 음식과 패션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K-Pop과 드라마는 모두 타인이 제공하는 것을 즐기는 수동적인 형태이지만 음식과 패션은 그들의 생활이 되는 능동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스시는 세계의 입맛을 한 번 사로잡은 후 전 세계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역시 불고기와 비빔밥 등 전통 음식의 조리법을 널리 알리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직접 만들고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큰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류 열풍을 관광과 제조업으로 연결할 필요도 있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2011년 기준 980만 명을 기록했는데, 2009년부터 관광객 숫자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현장인 '남이섬'을 방문하거나 한류스타가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하고, 고궁, 민속촌, 경복궁을 가고 템플스테이 같은 것을 체험하고 있다. 또 한류스타의 얼굴과 비슷하게 성형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관광, 의료 등으로 연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의료관광은 특히 중동의 왕족이나 러시아의 부호가 올

경우에는 전용기를 타고 한 번에 몇 십 명씩 오기도 하는데, 환자는 누워 있고 나머지는 관광을 하니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 만든 자동차가 드라마에 협찬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고, 이것이 수출 증가에 효과 노릇을 하기도 한다. 이라크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보다도 늦었지만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다. 한류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류가 한국의 상품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83.6%, 한류스타가 광고에 출연한 제품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66.9%나 되었다. 덩달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도 20위에서 15위로 급상승했다. 10위 안에 진입할 경우 수출 10%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응해 정부에서도 한류 3.0 가동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 있는 유물과 작품 사진을 구글에 올리는 '구글 아트 프로젝트'도 그 중의 하나이다.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한류 발전시켜야

그럼 한국 경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한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사실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집단가무'는 고구려의 무용총(舞踊塚)에도 있고, 조선의 선유락(船遊樂)에도 있다. 이미 고구려와 조선시대에도 '걸그룹'이 존재했던 셈이다. 피카소는 한 장의 종이에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구현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입체파의 작품은 처음에는 대중에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세기를 풍미하는 대표적 사조가 되었다.

그런데 피카소의 독특한 화법은 사실 개인의 창조가 아니라 아프리카 미술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창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법고창신'이다.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재직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에서 6번째 규모로 크고 아주 잘 지었다고 칭찬을 받지만 한 가지 늘 아쉬웠던 것은 '왜 여기에 한국적인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이었다.

루브르박물관에 가면 유리 피라미드가 있고, 일본이나 중국의 국립 박물관에는 각 나라의 정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청자 정자를 만들었다. 청자는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중국에는 사발, 보시기, 주전자만 만들었지 청자로 기와를 만들어 집을 짓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자를 지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박물관 내에 청자 기와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여기가 바로 포토존이 되고, 어느 나라 박물관인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화룡점정인

것이다. 드라마와 K-Pop 모두 한국적인 것만을 고집하지는 것은 아니다. 화룡점정처럼 여러 것들 중에 한국의 눈동자 하나쯤은 각인시켜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킬러 콘텐츠'이다.

전통을 응용해 창조한 고품격 문화의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청자 상감 포도동자문'의 동자(童子)를 모티브로 삼은 이중섭의 '아이들'은지화 연작, 아테네 여신의 저주를 받은 메두사를 회사 로고로 사용한 베르사체, 유럽의 옛 설화를 바탕으로 창조된 스토리텔링 '반지의 제왕' 등이 있다. 이런 발상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문화 될 수 있어

한국 주재 대사들을 '창덕궁 달빛기행'에 초대했을 때의 일이다. 스티븐슨 전 미국 대사가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흐르고 밤새가 흐스끼는 경관을 돌다가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 일본의 여러 정원도 많이 가봤지만 우리나라 창덕궁의 특징은 자연적이다. 원래 있던 언덕, 원래 있던 나무를 그대로 두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고, 우리가 살려야 할 것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자금성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 것은 왜 이리 작으냐?'라고 하지만 자금성은 한 번 가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우리의 창덕궁은 다시 가고 싶은 궁이다.

경주에서 UN WTO 국제관광총회 당시 외국인에게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를 다 보여줬는데도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밤에 등을 하나씩 들게 하고 안압지를 산책하게 했더니 한 시간이면 둘러볼 곳을 두 시간이나 걸려 돌면서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한국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적이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송례문까지 들어오는 길을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를 알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들뿐이다. 중국의 베이징공항에 가면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면세점 가는 그 비싼 길목에 중국의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일본공항에도 에도시대 건축물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천공항은 열심히 해서 서비스는 세계 1위지만 한국적인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 9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공항 내에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짓고 있으며, 국회에도 '사랑채'라는 한옥을 지었다. 세종시에도 이름에 맞게 ㅁ, ㅂ을 활용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우리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음식은 비빔밥이고, 유물은 조각보라고 생각한다. 조각보에는 달항아리를 보여주는 하얀색, 검은색, 오방색,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 다양함이 들어있다. 우리 선조들은 바느질 하나로 남은 자투리를 가지고 보자기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데 하나로 잘 조화롭게 만든 것이 한국문화이다.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머니즘,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여러 개의 조각된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류로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 주체들이 각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데 힘을 것이다. **김세진**



제174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다국적 기업에서의 글로벌 인재상 및 한국시장의 위상



1984년 3M에 입사해서 14년 정도를 근무하고, 1998년에 회사를 나왔다. 이후 싱가포르 회사에서 10년 정도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약 5년 전인 2007년도에 3M 싱가포르에 재입사했다.

그리고 이후 한국3M으로 옮겨 와서 사장이 되었는데, 사실 국내 회사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한번 그만두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임원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사고방식, 여러 가지 변화에 수긍할 수 있는 자세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때문에 10년간 타 회사에서 근무하다 들어와서 새로운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글로벌 기업이 가진 장점이다.

유연한 사고방식이 이루어낸 성과

현재 46개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3M은 본사가 있는 미국 외의 매출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다. 지난해 약 34조 원의 매출(순이익 7조 원)을 기록했으며, 직원은 8만 5,000명에 달한다.

1902년도 미네소타에서 광산 회사로 출발해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진출해 있다. 한국3M은 197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세일즈, 마케팅, 제조, R&D 부서까지 갖춰진 국산화된 기업이다.

3M은 애플, 구글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3위로 랭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 18위에도 올라있다. 한국에서도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4위에 올라있는데, 이는 30위권 내 기업 중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는 유일하다.

3M의 세계적인 성공 이유는 3M만의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들 수 있다. 그 중 '15% 룰'과 '40% 룰'은 1949년부터 1966년까지 3M을 경영했던 윌리엄 맥나이트가 만든 규칙으로 3M의 모든 기술직 직원들은 근무시간의 15%를 본인이 가진 개발 아이디어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인이 가진 개발 아이디어를 위해서라면 사무나를 하거나 당구를 치거나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15% 룰'은 창조적 사고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로 기술 개발 및 신제품 생산을 이

뤄내고 있고, 그 덕분에 6만 4,000여 개의 3M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3M은 미네소타 광산의 제조업으로 시작했는데, 광산에서 돌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그 돌가루로 상품을 만들려는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종이에 돌가루를 뿌려보다가 연마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연마제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돌가루에 종이를 붙이려다 보니 접착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접착제이다. 돌가루에 종이를 붙여 연마제를 만들고, 돌가루를 붙이려다보니 접착제를 개발하게 되었고, 종이에 접착제를 발라보니 테이프가 생겨났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필요에 의해서 진화하며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제품군이 나왔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쓰는 수세미부터 우주왕복선에 들어가는 내열탄과 우주복에 들어가는 특수소재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동력이 바로 15% 물이다. 15% 물은 혁신 DNA를 생성시켜 3M이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동력이 되었다. 또한 3M은 NPVI(New Product Vitality Index), 즉 지난 5년 동안 출시된 신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40%'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신제품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기준 3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제품들은 블루오션인 경우가 많아 타 제품보다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3M이 추구하는 모토 중 하나이며, 실제로 이 '40% 물'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혁신의 DNA를 이끄는 주체는 바로 '인재'

과거에는 합의 리더십을 이야기 했다면 현재는 '전이(轉移, trans-formational)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전이 리더십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저술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전이 리더십에 대한 견해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과 조직을 완전히 바꾸려면 마음과 진정성이 있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조직은 강압적 지시로 바꿀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이 리더십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6가지 리더십 속성이라고 하는데, 인재의 속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 6가지 리더십 속성을 통해 인재를 교육하고 조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첫째, 외부의 시각에서 조직을 본다. 내부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타성이 생기고 이미 해오던 것이 옳다고 고집하기도 한다. 3M은 창립 후 110년 동안 딱 2번 외부수혈을 했다. 영업 이유는 110년 동안 내부에서 CEO를 선출하고 관리하다 보니 외부의 시각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영입해서 외부

의 시각으로 3M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했다.

둘째, 혁신과 성장을 추구한다. 셋째, 상호 개발하고 가르치고 교감한다. 넷째, 용기있는 결정을 한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용기있는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섯째, 에너지와 열정, 위기의식을 가지고 리드한다. 여섯째, 3M 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아무리 기업이 매출을 많이 올려도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 그 기업은 장수할 수 없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00년대 발생한 엔론 사태이다. 엔론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 30위 안에 항상 랭크되던 회사였으나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월가에서 축출 당했다. 3M은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기업이 아무리 영업을 잘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윤을 많이 내더라도 소위 정직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그래서 3M은 3M 벨류라고 해서 정직성과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협상하지 않는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관리 방침이다.

이와 같은 6가지 리더십 속성을 통해 발굴한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려고 한다. 문화적, 지역적 구분이 없고, 학력과 업무에 대한 구분이 없다. 능력이 있다면 문화적 지역적 구분, 학력과 업무에 대한 구분은 중요치 않으며, 철저한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펼친다.

3M은 비록 미국 회사이지만 3M을 움직이는 최고위층 임원 중 절반은 스페인, 영국, 한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적이나 학벌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3M의 조직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잇은 '혁신과 성장을 추구한다'는 속성에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자인 아트플라이는 연구적으로 붙는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패했다. 다른 기업 같았으면 이 실패작을 버렸겠지만 3M의 문화는 실패를 용인해주기 때문에 그 '실패작'을 상품화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 접착식 메모지를 탄생시켰다.

이는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품이 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혁신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업문화, 이것이 3M의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이끄는 통합가형과 열정가형 리더

서구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아시아 인재에 대한 평가절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리더들이 서구 기업 리더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의 리더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지만 창의적인 일을 하기에는 2% 부족한 경향이 있다.

매니저와 리더의 역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매니저는 회사 방침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회사의 지침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그리고 주위의 인적 자원이나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역할 차이로 매니저는 수동적이고 리더는 능동적인 특성이 만들어진다. 아시안 리더들은 매니저에서 리더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3M은 6가지 리더십 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국내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서 활용하고 있다.

6시그마를 창시한 GE의 잭 웰치는 생산성과 효율성, 명료한 업무 처리를 중시했으며, 대표적인 실행가형 리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매년 직원들을 상-중-하로 평가해서 하위 10%는 퇴출시켰다. 이를 통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역동적

인 문화를 만들게 되었지만 잭 웰치의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을 긴장감 있게 운영하다 보니 하위 10%가 떠나는 만큼 상위 10%도 조직을 이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드라 누이는 대표적인 관리자형 리더이다. HP와 팹시콜라의 여성 CEO로 재무 데이터에 입각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감성이 지배하는 시장의 변화와 대중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서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 역시 또 하나의 실패 케이스가 되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대표적인 통합가형 리더와 열정가형 리더로 꼽힌다. 공감대 형성 능력이 뛰어난 오바마는 신뢰, 변혁, 통합을 내세워 소수민족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30대 이하 유권자로부터 전례 없이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페이스북의 대표인 마크 주커버그도 격식을 차리지 않으며, 빠른 상황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현재의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세상이 변화하는 힘을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며 이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존재 이유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에는 실행형과 관리형 리더십은 불필요하다. 잭 웰치나 인드라 누이 같은 리더는 현재와 같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성이 필요한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신경영에 필요한 리더상은 버락 오바마와 같은 통합가형 리더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열정가형 리더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통합가형 리더와 열정가형 리더의 비율은 4%에 불과하다. 물론 한국적 역량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빨리 빨리'로 표현되는 스피드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1년 반 만에 석권했고, 한국3M은 미국에서 제재에만 1년의 시일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4~5개월 만에 마친다. 이는 실로 우리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새로운 글로벌 역량을 첨가한다면 한국형 글로벌 인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 추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많은 R&D 센터가 이전해 오고 있으며, 심지어 본사까지 옮기는 기업들도 있다. 아시아 지역 내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현재 4,800만 가구가 중산층이며, 2020년에는 1억 3천만 가구가 중산층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1,400가구 정도가 중산층이지만 앞으로 6,000가구 이상이 중산층이 될

“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이는 선순환 구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강연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하는 전상백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아시아지역의 구매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R&D 예산의 경우 4천억 달러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슷하며, 유럽보다는 월등히 많다. 이것은 아시아의 잠재력을 대변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폭발적인 내수시장 증가의 기대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11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3.6%에 그쳤고, 올해도 3~3.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의 생산 증가율도 3~3.4% 정도이고, 인구 증가율도 1% 미만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다.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제품의 제공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IT 제품뿐만 아니라 그 외 화장품 등 수많은 상품군에서 테스트 마켓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다 통한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과 같다. 그만큼 한국시장의 고객은 까다롭다. 한국시장의 고객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많은 노

력을 해야 하며 좋은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하다. 국제적 감각이나 어학수준이 뛰어나며, 한국 사람들이 가진 스피드와 주인의식은 정말이지 출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인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IBM, GE, 구글 등의 기업에서도 한국인들이 아시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구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 글로벌 인재를 영입해서 잘 교육하고,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 매니지먼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이는 선순환 구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통합가형과 열정가형 인재상 위에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되면 고부가가치 사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생성하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그것이 근간이 되면 한국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한국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될 것이다. **김재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인간개발연구원은 이 시대의 리더들과 함께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갖추어진 조건이 아닌 온갖 역경을 이겨나가는 리더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진솔하게 담아내는 대화의 공간. 여러분의 지혜나눔으로 건강한 가치들이 살아 숨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TPT 멘토대학은...

인생을 통해, 경영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하면 좋을까요? CEO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개발연구원이 보유한 명사특강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대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멘토대학은 강연과 멘토링의 나눔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지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TPT 멘토대학 참여는...

- CEO(창업자/전문경영인)
- 공직자 및 행정전문가
- 신문, 방송 등 언론인
- 총장, 교수 등 교육계 인사
-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
- 트렌드, 마케팅 전문가
- PD, 영화감독, 광고인, 방송인 등 영상예술인
-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인
- 운동선수, 산악인, 스포츠 전문가
-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PT 멘토대학 나눔사업은...

아름다운 리더들의 나눔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강연나눔

기업·기관 강연나눔 - 강연기부사업을 펼쳐갈 모체를 만들어주세요.

연구원의 다양한 협력기관 중 필요한 곳에 강연해주시고, 강사비를 기부약정해주시면 지혜나눔사업의 인적구성과 재단형성의 모체로 사용되어집니다.

학교 강연나눔 - 다시 학생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진학과 취업을 뛰어넘는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기부해주세요. 이미 전국 주요 지자체와 함께 중고교, 대학 등 순회강연을 개설해 미래의 리더를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콘서트 강연나눔 - 위기를 창업의 기회로 만드는 마술사

풍부한 창업 노하우를 가진 분야별 CEO들의 시리즈 강의로 기업가 정신을 키웁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 맞는 창업 노하우를 찾아 가는데 등대지기 역할을 합니다.

NGO 강연나눔 - 강연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NGO기관과의 강연나눔 특강 제휴사업으로 리더들의 지혜를 나누는 강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킵니다.

강연 동영상서비스 - 온라인과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나눔문화

기부해주시는 강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멘토링나눔

대학생 멘토링제도 - 네가 만약 해매일 때면... 내가 멘토가 되리!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CEO들이 대학생들의 멘토가 됩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에 대학생 멘티를 기수별로 운영합니다. CEO와 함께 명사특강도 듣고, 온오프라인에서 대화의 시간도 가지며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티들은 기수별로 활동보고서를 통해 멘토링제도의 유익함을 알립니다.

청소년 멘토링&인성교육 - 미래의 인재, 청소년들의 인생에 등불을 밝힙니다.

학교 강연나눔을 통해 만난 전국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맺습니다. 영역별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공간나눔

기업의 회의공간을 멘토대학 장소로 기부해주세요

멘토대학은 아직 꿈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라 기부강연 때마다 장소의 제약이 있습니다. 기업의 CSR 차원에서 회의공간을 후원해주시면 멘토대학은 CSR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해드립니다. 추후 전용교육관 및 CEO의 서재를 운영하여 모든 사업의 구심점이 되고 지혜나눔의 랜드마크로 키우겠습니다.

멘토플라워나눔

회원사가 멘토플라워를 이용하면 수익의 10%가 멘토대학에 기부됩니다.

평소 이용하시는 꽃배달 서비스를 멘토플라워를 통해 주문해보세요. 스마트한 주문부터 도착한 모든 꽃을 도착 현장 사진으로 확인해주는 화훼유통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착한 꽃 '플라워팀'과의 제휴로 기업에도 도움을 드리는 멘토플라워, 더불어 멘토대학의 재정을 돕는 일거양득의 나눔활동입니다.

나누는 사람

성명(단체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회사명 _____	부서/직위 _____
직장전화 _____	직장팩스 _____
핸드폰 _____	주소 _____
이메일 _____	

20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인간개발연구원
T. 02-2203-3500 F. 02-2203-1974 E-mail : sy7079@naver.com

후원 및 기부나눔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리더들,
나눔회원이 되어주세요.

강연나눔 회원

2012년 ☐ 1회 ☐ 2회 ☐ 3회의 기타(회)의 강연을
기부하겠습니다. * 강연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멘토링나눔 회원

☐ 2명 ☐ 3명 ☐ 4명 ☐ 기타(명)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하는 대학생 멘티들의 멘토로 활동합니다.

공간나눔 회원

2012년 ☐ 1회 ☐ 2회 ☐ 3회의 기타(회)의 강연을
기부하겠습니다.

교육장 위치: _____

담당자 연락처: _____

* 멘토대학의 꿈을 펼칠 공간을 기부합니다.

벽돌나눔 회원

☐ 1구좌 100만 원 ☐ 2구좌 200만 원 ☐ 3구좌 300만 원 기타
(구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 전용교육관 설립을 위한 기부입니다.

멘토플라워나눔 회원

_____에서는 멘토플라워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할 것이며,
이용에 따른 적립금 10%를 멘토대학에 후원하겠습니다.

회사명: _____

담당자 연락처: _____

지정기부나눔 회원

CMS 자동이체 신청

매월 ☐ 1만 원 ☐ 2만 원 ☐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기타 _____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지정일

매월 ☐ 5일 ☐ 15일 ☐ 25일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지정기부 신청

후원계좌로 20 년 월 일까지 _____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입금처: 국민은행 381-01-0050-244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기부금은 멘토대학 운영을 위한 소중함 마중물로 사용됩니다.

* 인간개발연구원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체질 개선으로 생산성 극대화 대한민국 리딩뱅크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갖춘 금융기관으로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및 금융산업은 저성장, 글로벌화, 스마트화, 고령화 등의 트렌드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대출 중심의 비균형적인 영업 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국내 금융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윤대 회장의 일갈이다.

2008년 9월에 설립돼 올해 4년째를 맞는 KB금융지주도 어윤대 회장 취임 당시(2010년 7월) 비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운용으로 수익성 하락, 생산성 저하, 부실여신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어윤대 회장 취임 이후 거대한 조직에 강력한 체질 개선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경영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그룹 체계 확립을 최우선 경영방향으로 정하고, 그룹 변화혁신 특별팀을 구성해 인력 구조 및 영업점 업무분리 제도 개선, 희망퇴직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카드사 분사, 증권과 선물의 합병 등 경영체계 최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이다. 특히 미래성장 동력인 젊은 고객 확보를 위해 미래형 점포인 락스타존(樂 Star Zone)을 전국 41개 대학가에 여는 등 KB의 이미지를 한층 젊고 신선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런 노력은 투명 경영대상,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등 수많은 대외 수상 실적으로 이어졌다.

어윤대 회장은 향후 KB금융그룹의 성장 방향에 대해 ‘내실’을 지향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룹 차원의 변화와 혁신을 각 계열사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화와 혁신의 기치 아래 대내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KB금융그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어윤대 회장으로부터 세계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KB의 성장방향과 함께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취임 2주년을 맞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2010년 취임 당시 KB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운용 등으로 인해 수익성 하락, 생산성 저하, 부실여신 증가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취임 직후 변화혁신 TF를 구성해 그룹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추진했습니다. 규모가 큰 조직인 만큼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는 KB금융그룹이 변화의 큰 방향을 잡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매우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의 정신은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강한 로열티, 동료애, 단결력 등과 함께 KB금융그룹의 성장을 담보하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그중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가장 주력했던 분야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그룹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3월 KB국민카드를 분사하고, KB투자증권과 KB선물을 합병했으며, 노사합의에 의해 3,244명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 구조와 비용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신금융모델 구현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KB 樂Star' 채널과 같은 특화 금융 채널을 만들고, 'Hidden Star 500' 제도를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성장하면서 KB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영업 측면에서는 'KB WISE 플랜 적금&펀드', 'KB국민Up 정기예금' 등 소비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개발로 지난해 5월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총 수신 200조를 돌파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스마트 금융시장 또한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 내부에 능력주의 인사 및 성과주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우수인재에 대한 Fast Track(발탁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핵심인재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을 이끌면서 투명경영을 상당히 강조하시고, 또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지배 구조의 투명성 확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



● 어윤대 회장

1945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 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2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금융계와 본격 인연을 맺은 어 회장은 이후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산업은행 및 제일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1999년 국제금융센터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 2003년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고려대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킨 어 회장은 이후 정보통신부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 한미FTA 국내대책공동위원장,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장 등을 거치며 언론에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08년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2010년 7월,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KB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 회장에 올라 거대 조직 KB(韓寶)의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반 인프라 구축, 회계오류 및 부정 예방, 투명한 경영정보 제공 등을 통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이사회 기능을 확보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고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독립된 부서를 설치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위해 2007년부터 IFRS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2011년부터 그룹 공통으로 IFRS 회계정책 및 IFRS 연결결산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SEC기준의 공시요건(Form 20-F)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룹 회계정책 및 그룹공동 COA(Cart Of Account)를 수립하고,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통제를 강화하고 회계 오류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KB금융그룹은 투자자 설명회(IR)를 빈번하게 실시하고, 국내외 주주와 고객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B금융그룹의 투명경영은 각종 수상 실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2011 투명경영대상 대상 수상 및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 2011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이어 지난 6월에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향후에도 지배 구조 안정화와 투명하고 엄격한 회계정책 운영을 통해 주주 및 시장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취임 당시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하셨는데요. 현 상황은 어떤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KB금융그룹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인재에 대한 Fast

Track(발탁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탁월한 업무추진으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직원에게는 그룹 차원의 최고 포상 수여 및 승진 등에 우대함으로써 고성과 조직문화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명확한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해서 KB금융그룹 전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직 내에 성과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는다면,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인사와 보상 등에서 우대받는 사리가 분명한 조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위해 KB는 능력·성과주의 HR체계 정착을 위한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고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뿐만 아니라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가 조직에서 도태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목표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후 현업에 재배치함으로써 개인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B는 조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산업도 새로운 경쟁력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발전 방향과 함께 국내 금융계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하신다면 어떨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및 금융산업은 저성장, 글로벌화, 스마트화, 고령화 등의 트렌드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대출 비중, 국내 중심의 포트폴리오, 이자이익 편중 등 비균형적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은행들은 국내 대출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남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갖추지 못하고 현재에 안주한다면 저성장 시대에 급박한 가격경쟁 속에서 낙오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위기 극복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임한다면 한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내 금융계는 이미 시장 포화상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KB금융의 20~30대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내실을 지향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경기 불확실성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KB금융지주 2012 사무식

작년 초부터 미래 성장동력인 유스고객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SNS 기반의 신개념 특화 점포인 '樂star 존'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1개 지점이 운영 중인 樂star 점포는 지점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직원을 해당 대학교 출신의 20~30대 젊은 직원 위주로 구성해 젊은 은행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스고객 확보에 주력한 결과 약 35만 명의 대학생 고객을 신규로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참여형 마케팅 및 문화 마케팅을 통해 樂star가 은행과 대학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KB국민은행의 젊은 이미지 창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KB에 대한 유스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KB국민은행이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은행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2 THE PROUD 고객 가치 최우수상품'으로 樂star가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樂star가 최고의 고객가치로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樂star는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가능성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총 수신 잔액이 약 3,400억 원으로 전년 말 2,071억 원 대비 62%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력도 체크카드 사용, 외환거래 등을 통한 비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로 크게 성장하는 추세여서 홍보효과를 위한 마케팅 채널로서의 역할을 넘어 신규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樂star는 유스고객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KB국민은행이 유스시장의 선도은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래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KB금융지주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방향을 말씀해주시죠.

KB금융그룹은 중장기적 성장 전략을 '내실 위주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로 수립하고, 2012년도 전략방향을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실'을 지향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경기 불확실성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특히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한 그룹 차원의 '변화혁신'을 이제 각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문별로 은행 부문은 먼저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수익성에 기반한 가계·기업 부문의 균형성장, 우량 신용등급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소매금융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외환서비스 및 대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충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업 고객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은행 부문은 카드, 증권, 생명, 자산운용 등 주력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해 향후 이익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자생적 성장을 추진하되, M&A 등을 통한 비자생적 성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금융그룹의 해외진출 전략방향은 중국 및 동남아 등 주요 전략시장에 전진기지를 구축한 후에 현지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영업기반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유기적·비유기적 성장을 병행하는 현지화에 의한 성장잠재력 확보, 기 진출한 해외 네트워크의 국가별, 점포별 특성에 맞는 성장과 시너지 극대화,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현지 언어 및 문화에 정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함께 해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 정비하는 해외 네트워크 관리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대상지역은 현재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내 고성장의 전략시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주 타깃으로 해당 국가의 규제 환경 및 영업여건을 감안해 최적의 형태(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설립, 지분투자, 합작법인, M&A)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하반기 세계경제의 흐름 및 국내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반기 세계경제는 유럽 문제, 중국 성장률 우려 등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 8%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는 고용확대와 물가안정이라는 회복 모멘텀이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를 제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 여력, 금리인하가 가능한 정책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확장 여력이 있는 정책환경이 하반기 국내경기의 안정요인으로 작용해 3% 초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소통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임직원들과의 소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한 '신임 회장에게 바란다'라는 직원의견 공모에는 경영전략, 영업, 조직, 홍보 등에 관련된 2,0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경영전반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룹의 주요 전략·시너지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회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시너지 회의(SS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 세계경제는 미국이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고, 중국 정부도 경기부양을 강조하고 있어 연 8% 내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경제는 높은 재정 여력,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3% 초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1년부터 시작된 ‘CEO와의 대화’는 분기마다 개최해 일선 직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간부급 직원 및 임직원 300명이 모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KB금융 경영진 월례 조찬회’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사내 웹진을 개편하기도 했는데요. 사내보 ‘KB Friends’의 인쇄발행을 중단하고 지난해 12월 웹진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웹진을 오픈해 편의성, 수준 높은 콘텐츠, 다양한 참여코너 등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KB금융그룹 소통의 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간 벽을 허물고 상하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또 영업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회장님은 국내 금융계를 이끄는 리더이시기도 하지만 학자와 교육자로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우리의 교육정책,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발전을 이룩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발전을 떠나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국가, 좋은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되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좋은 사회, 좋은 국가로 발전하려면 ‘인간개발’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 성장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개인의 행복은 물론 크게는 국가의 변영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도 임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KB금융그룹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진정한 고객만족,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연구원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조찬세미나 개최 등 CEO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및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경제발전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죠. 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인간개발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심어온 인간개발연구원의 높은 사명감과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1975년 2월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국내 최고의 공부모임이자 친교모임으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큼니다.

향후에도 인간개발연구원이 교육의 장을 넓혀 국민 모두가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ㄹㅇㅇ



2018 동계올림픽 준비 아직 멀었다고요? 강릉시 올림픽 대비 친절교육 한창

**-5월 30~31일, 강릉시청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직원 CS 특별연수 열려**

지난해 7월 남아공 더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정의 축포가 쏘아진 이래 강릉시(시장 최명희)도 동계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다.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은 종목에 따라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나뉘어 개최된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 5월 30~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과 협력하여 시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직원 CS 특별연수'를 개최하였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동계올림픽을 맞이해 방한하게 될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인들에게 친절한 강릉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더 나아가 강원도를 동계스포츠 및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연수 첫날 직원 격려차 강단에 오른 최명희 시장은 공직자들의 사기 고취와 열린 행정에 대한 화두로 말문을 열었다. 최 시장은 “여러 공직자들이 인원 대비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1. 강희선 원장
2. 강광배 부회장
3. 김진배 원장
4. 최명희 시장
5. 노병천 박사

“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과 동계올림픽이라는 분명한 한 가지 모토를 통해 직원 모두가 단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고 있다”며, “모두들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과 동계올림픽이라는 분명한 한 가지 모토를 통해 직원 모두가 단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깝게는 주민과 친절히 소통하는 행정, 그것이 강릉시가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공직자들의 CS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함께 열린 행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첫째 날 CS 전략 및 의식개혁을 위주로, 둘째 날은 CS 커뮤니케이션과 동계올림픽 실전 전략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기간 주요 강사 및 주제를 살펴보면, 강릉시 최명희 시장을 필두로 하여 노병천 전 나사렛대 부총장의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정신 무장법 ‘이순신과 함께 파워 리더십’을 시작으로 강희선 서비스에듀 원장의 세계 스포츠인들을 맞이하는 친절한 강릉시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한 ‘글로벌 에티켓과 친절서비스 전략’, 김진배 유머센터 원장의 내가 즐거워야 고객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유쾌한 강릉시 만들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홍광수 DISC연구소 대표의 CS 전략을 바탕으로 한 성격유형별 고객소통법인 ‘DISC CS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강광배 부회장의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운영과 사후 경기장 활용 등 동계올림픽의 수익창출 부분과 아시아 국가들의 동계스포츠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계올림픽 자긍심을 가져라’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강광배 부회장은 2010년 황무지로 불리던 국내 봅슬레이팀을 이끌고 아메리카컵 8차 대회 봅슬레이(4인승)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으며, 영화 ‘국가대표’의 원주인공이기도 하다. 특강에서 강 부회장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이라 함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무탈하게 운영되는 것 외에도 지역 발전이라는 경제적 수익성 개념과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메카로서 스포츠 산업의 확장 의미도 가미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 수익구조 모델과 올림픽 이후 경기장의 활용형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다가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실천적 기법 및 사례와 함께 실제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 및 대기시설 견학 등 기존의 딱딱한 CS 교육과 차별성을 두고 진행되어 많은 호평을 받았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2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7회 제주포럼’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1,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대표 포럼으로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외교통상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간개발연구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차이나매거진, 동아시아재단 등 23개 기관이 마련한 평화, 경제, 환경 등을 주제로 60개 세션이 운영되었다.

제주포럼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우근민 제주지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존 키팅 호주 전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 아피시트 웨차치아 전 태국 총리 등이 참석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제주포럼 조직위원장)는 개회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한일·한중 FTA 협상 개시 등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 미래 공존을 위해 자연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무역, 문화, IT, 금융, 관광 등의 의제를 평화와 공유하면서 융복합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전 세계는 전환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2050년에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리더를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지역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2001년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다국적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은 “OSCE는 당초 정치·군사적 기구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그 활동범위를 크게 넓히며 진화했다. 회원국들은 폭넓은 안보 개념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다루는 이슈는 민주주의와 인권문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폴 키팅 전 호주 총리는 “중국 등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무대의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질서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각국은 국내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별 세션으로 인기를 끌었던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진정한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강조면서 “창의성은 언제 어디서 떠오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새로운 제품을 생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렵지만 일단 가능하다고 믿고 실행에 옮긴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방향을 생각해보고,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며 항상 우리는 창의적인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은 한국경제와 기업의 과제

▶ **사회** :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 **주제발표** : 어운대 KB금융지주 회장

▶ **토론** :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

한국은 1970년대까지 세계 최하위의 경제 빈국에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2년 세계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는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 1.0의 메커니즘은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1.0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마비됨에 따라 소득격차로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공황 시대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 추진과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새로운 자본주의 2.0의 시대가 왔다. 불황기에는 재정적 적자를 감소하고, 공공수요 보조금 지급 등 그동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행되던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미국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서, 효율저하 및 고용축소와 오일쇼크로 경제혼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 3.0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3.0 시대는 레이거 노믹스의 과거보다 시장을 더 중요시 여긴 정책을 핵심으로 수요공급을 통한 시장의 자유를 존중했다. 주요정책은 세금감축, 공급 경제학, 기업자율, 군비 경쟁이었지만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소위 99%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아나톨리 칼레츠키가 주창하는 자본주의 4.0 시대가 왔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생이 필요하다.

공생을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 원천과 하청기업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둘째, 투명성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기업의 주가에 투명경영이 반영될 것이다. 셋째, 윤리경영이다. 도덕 및 환경 문제가 지속경영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다. 넷째, 편법 자회사를 만들어 경영 승계를 하려는 변칙 상속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 다섯째, 기업이 정신이다. 여섯째, 소통에 대한 문제다. 소통은 양방향성인데, 한국의 과거와 같은 직접대화가 아닌 간접대화를 통해서만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 일곱째, 기부활동이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기부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창의 혁신으로 파이를 키워야 한다. 현재 생기고 있는 현상들이 정부의 강제적인 제재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스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등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무역흑자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가 분수에 맞게 소비를 하는 나라는 흑자를 낸다. 이처럼 문제의 본질은 항상 단순하다. 분수를 지키고 적절한 소비, 투자, 지출하지 못해 위기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융합되어야 한다.



중국경제의 배경과 발전추이 및 문제점 분석

▶사회: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주제발표: 이의평 인민대학 교수

▶토론: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권순기 중한기업협회 회장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 경제로 부상한 중국은 세계경제 기여도가 25%이며, 1인당 연소득은 2010년 4천 불로 급증하였다. 세계경제의 통합에 있어 세계도 중국이, 중국도 세계가 필요하다.

당면한 중국경제의 여건을 살펴보자. 세계경제는 여전히 화생단계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최근 들어 부진을 거듭하는 중국의 수출에 호재로 작용한다.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의 질과 복지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미래의 경제성장 패턴은 반드시 혁신과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정부가 시중에 푼 4조 위안의 거시적 경제성장 견인 효과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향후 각 기업들은 당국의 정책적 혜택이 아닌 자생력 제고에 올인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CPI 상승폭을 4%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CPI 상승을 억제하는 키포인트는 농산물의 유효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농업 문제는 도시화가 아닌 농업의 기술 집약도 향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향후 중국의 부동산 긴축정책은 시장원리에 따라 중등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염조방'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더욱 심층적인 원인은 지방정부의 토지경영권 재정에 있으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또한 중소 민영기업의 융자난 문제가 심각하다.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은 체제 내에만 분배되고,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중소 민영기업 및 영세기업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개편 등 방식을 골자로 한 리셔플(Reshuffle)을 단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 패턴 전환에 의한 선순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사고방식과 행위방식이 모두 시장화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실행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당국이 관여를 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참된 의미의 성공이 아닌 '성공'으로 당국의 자신감이 팽배하면서 정책적인 관여에 재미를 들고 있다. 민영기업, 사영기업들은 국유 중앙기업 등과 평등하게 각 산업부문에 진출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일부 업체들은 자금 해외이전 또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 기업인들로 하여금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훌륭한 사회적 여건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5천 불 수준의 경제 진입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슈는 사회적 이슈로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는 전환기이다. 이는 세계적인 정치리더십의 교체시기에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서에서 중국의 방향성이 큰 영향을 주고 있기에 앞으로의 모든 국제적인 정책과 전략 부분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공생의 한중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기와 재난의 풍파로 잠을 깬 일본기업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 **주제발표**: 고미야마 히로시 미쓰비시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 **토론**: 후나토 요시노리 아시아얼라이언홀딩스 대표 / 김도형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조우진 일본 다마대학교 교수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유한한 지구, 고령화 사회, 방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장수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인류 발전과 함께 추구해온 것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저출산이다. 일정 연령대에 얼마나 건강한지를 비교해 보면, 50년 전의 50대와 지금의 70대가 동일하다. 15세에서 64세를 경제 활동 인구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고령자까지 포함한 활기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래티넘 사회라는 비전을 제안하고 싶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의 선진 국가들은 개도국의 일반 국민들이 풍요로운 환경에 살고 있다고 본다. 자동차, 정보, 단말기, 음식 등 모두 의식주, 정보를 점유했던 사람들이 시장을 지배했다. 21세기에는 누구나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후진국, 개도국, 선진국이 있지만, G20 국가는 2020년에 모두 선진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 이렇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닌 지방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물의 양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 수준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플래티넘 비전은 에너지 70%, 미네랄 70%, 음식 70%, 목재 100%, 식수 100%를 통해서 녹색혁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버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고령화 사회를 활기찬 사회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70세 후반이 되면 더 이상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90세쯤 죽게 된다.

하지만 20%의 사람들이 60대 전반에 뇌경색 등으로 쓰러지게 되고 장기 수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20% 사람들을 건강하고 활기찬 80%의 고령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다.

중요한 점은 노인들의 단기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지만, 지적 능력은 나이와 함께 더 향상된다. 결국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미래 직업 형태의 60%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일자리일 것이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게 된다. 'Growth beyond Limit', 일본은 이런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통해서 일본은 'Growth beyond Limit'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주의는 자연이고, 낙관주의는 의지이다(Passivism is nature, Optimism is Will)." 인공물의 포화, 해수면의 상승 등의 환경 및 경제 위기 등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경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은 서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 정부가 주도되어 활동하고 있다. 기술적 이노베이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비전을 가지고 낙관주적인 비전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로마클럽의 limit of growth가 아니 beyond the limit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미리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한국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는 세계경제의 미래다

▶ **사회**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주제발표** :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 **토론** :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 신정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전 세계는 바야흐로 에너지 문제에서 어느 한 국가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작년에 발생한 동일본지진과 쓰나미로 일어난 원자로 사고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위기의식은 갈수록 고조되어 가고 있다.

특히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 자원 독점에 대한 야망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 경제의 위기와 전망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한국경제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 필연적으로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너지와 세계경제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 독일의 한 학자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에너지 전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원자력발전 공장이 폐쇄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여파로 인해 에너지 가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에너지 확보가 우선이며,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이 둘째이고, 세계 기후변화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유가의 가격 변동성이 요동치고 있어 에너지 확보 전쟁은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이다. 기술개발의 혁신에 따라 1년에 30만 배럴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 계산으로도 5년 뒤에는 150만 배럴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쿠웨이트 국가 규모의 석유 생산국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파나마 운하의 증축으로 미국 동쪽에 있는 가스관과 오일 운송시간의 절약으로 미국의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경쟁력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양적으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20년까지 안정적인 35% 수준으로 높이고 질적으로 대형광구 진출을 통해 개발자원이 안정적으로 국내로 도입될 가능성을 기대한다. 대체 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기 이전까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원전운영은 불가피하다.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해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47% 개선하고, 가격기능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금년 중 10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추가 건설, RPS 의무량 조기 이행 등 태양광 수요를 창출하고, R&D, 금융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원전기술 100% 자립(現 95%) 및 원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도모해야 한다.

2020년 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규제해야 한다. CCS,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ESCO(에너지절약기업) 등 CO2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산업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인류역사와 문명사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에너지를 잘 활용한 국가와 문명이 융성했다. 무역 2조 불, 국민소득 4만 불로 진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號’를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면서 수급관리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금년 여름에 국민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절전운동 동참을 기대해 본다.



‘대화와 소통기법, 인성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 소통과 공감을 만들어 가는 2012 소통아카데미 2·3기 수료



사회 구성원간 활발한 소통과 공감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2012 소통아카데미’가 지난 3월 1기에 이어 2기와 3기가 각 기수별 200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수료했다.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2기 강좌에서는 도정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엄용수 방송인을 모시고 인문학과 소통, 경제·복지와 소통, 유머와 소통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차로 진행된 3기에는 이상벽 방송인, 김용택 시인,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 이사장이 강사로 참여해 소통하는 삶을 만드는 인생 5계, 자연과 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한국을 정상으로 달리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장만기 본원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이 자리는 연구원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소통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 사회 소통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석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종강인사를 통해 “2011년부터 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하면서 사회통합과 소통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전국적으로 10월까지 운영될 소통아카데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강좌도 듣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기본 인성을 함양해 사회통합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원이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의 후원으로 개설한 소통아카데미는 올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해 운영되며, 서울지역은 향후 4기(9월 5일~9월 19일), 5기(10월 10일~10월 24일) 일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소통아카데미는 시민들의 교양습득은 물론 우리 사회의 소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소통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기수별 1만 원의 참가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2기 참가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기 참가비는 월드비전에 전액 기부되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다. 소통아카데미 전 강좌는 방송대 TV채널 OUN을 통해 방영된다. 방송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2012 소통아카데미 강좌의 주요 발언을 발췌해 소개한다.

▼ 2기 2회차 김원식 교수



◀ 2기 1회차 도정일 학장



2기 3회차 엄용수 방송인 ▶



2012 소통아카데미 2기 1회차 / 4월 25일(수) 도정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인문학에서 배우는 소통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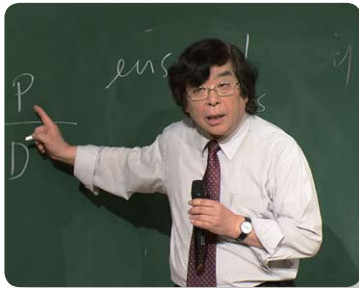
소통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도대체 무엇이 소통의 결핍을 가져오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결핍의 조건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소통은 불가능하고 화해도 없을 것이다. 불소통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경우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이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잡을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소통의 결핍을 경험한다. 결국 소통사회, 화해사회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제거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공존과 공생의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공존·공생의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조건은 돈이나 행복이 아니라 공정성과 공평성, 그리고 평등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핍되면 소통과 화해의 사회가 될 수 없다.

소통사회를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상처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다. 불소통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타인의 아픔, 타자의 상처에 대한 나의 책임과 직결된다.

동정은 내 가슴을 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연민도 소통의 한 형식이다. 상처받는 사람에 대해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정, 연민, 공감, 교감이라는 말은 소통의 인문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고, 교감하고, 공감할 때 그 사람과 일체감, 동질감이라는 영역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존재의 확장이고, 존재의 확장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증오와 슬픔, 분노는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작아지게 만든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공감, 교감, 동정, 연민 등 인간이 가진 특출한 능력이다.

공존의 정의가 살아있을 때 소통의 사회가 가능하다. 공존은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이다. 공존과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느 때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할 때 비로소 인문학과 만날 수 있다.



2012 소통아카데미 2기 2회차 / 5월 2일(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와 복지

자본주의 4.0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형태를 바꾸기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문에 있어 민간부문의 개념과 기법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1970년대 이후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개선을 이루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좀 더 저소득층까지 복지를 확대하려는데, 브레이크가 걸렸다. 중산층의 표심을 의식한 복지포퓰리즘 경제가 활성화된 것이다. 저소득층 복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전체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고용도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혁신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데, 우선 인구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사회진출 연령을 낮춰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은퇴 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것이 공생적 발전이다. 정부는 예방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민간에서도 기업이 먼저 근로자들의 복지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복지정책을 펼치면 이를 이용하려는 그룹들이 많아져서 성장과 연계시키기가 힘들어진다. 이를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복지지출과 근본적인 복지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 소통아카데미 2기 3회차 / 5월 9일(수)

엄용수 방송인

유머로 소통하라 - 관객과 함께 하는 인생

상대가 하는 말에 웃고 박수를 쳐준다는 것은 이미 소통이 됐다는 뜻이다. 인정하기 때문에 웃어주는 것이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웃으면 긴장이 풀려 얼굴에 힘이 빠지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리고 얼굴의 많은 근육들이 표정 운동을 한다. 단순히 움직여서 운동하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이 실리게 되고, 이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웃는 순간에는 목소리가 뇌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면서 뇌가 진공상태가 된다. 가식이 아닌, 인간 본성의 소리가 나는 것이다. 진공상태가 된 뇌는 웃는 순간에는 고민이나 걱정, 근심이 모두 사라진다. 웃는 순간 뇌가 정화되는 것이다.

니체는 '모든 웃음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웃음이 포함되지 않은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통에서 가장 핵심은 웃음이다. 웃음만큼 강력한 화합이 없다. 또 웃음만큼 소통에 빠른 것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수와 웃음에 인색한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방송용어는 품위, 윤리, 도덕성, 그리고 국민이 인정하는 상식이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런 제약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도덕이다. 결국 소통은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상대를 배려하는 인내와 인정,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노력이 있어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2012 소통아카데미 3기 1회차 / 6월 13일(수) 이상벽 방송인

소통하는 삶을 만드는 인생 5계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은 없지만 인적자원이 강한 나라이다. 우리 모두가 자원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1모작에 그치지 않고 2모작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첫째, '생계'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태어나서부터 50세까지를 1모작이라고 하고, 그 후 100세까지를 2모작으로 구분해 보자. 인생 1모작 기간은 부가까지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2모작은知足상락(知足常樂)이라고 해서 본인이 만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인성과 연결될 수 있는 2모작의 테마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처신의 계획 '신계'이다. 사람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끼(소질), 깡(신념), 끈(대열), 꺾(지혜), 꼴(자아의 모습), 꿈을 가지고 나의 삶을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가계'이다. 어떻게 가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문은 터, 기둥, 지붕으로 완성된다. 터는 사람이다. 사람을 얼마나 끌어 모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소통의 개념이다. 기둥은 입지이다. 인격과 품격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둥을 세워야 한다. 지붕은 자손으로 가문을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이다.

넷째, 노인의 계획 '노계'이다. 사람은 모두 늙고, 어쩔 수 없이 초라해지지만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면 곱게 늙을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다. 품위 있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늙그막을 맞이해야 한다.

다섯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사계'이다. 내일이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검히 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인생 5계의 틀을 짜서 여한이 없는 세상을 설계해 나가기를 바란다.



2012 소통아카데미 3기 2회차 / 6월 20일(수)

김용택 시인



자연과 나의 시(時),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소통을 얘기하는데,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생이다. 상생의 가치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치이다. 인류는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쌓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동안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러한 변화의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아이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삶이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늘 감동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나간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가르치기만 한다. 지금 아이들은 상대가 없이 대상만 가지고 논다. 상대란 나를 낮추고 내 생각을 고쳐서 다른 사람과 뜻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소통이다. 교육이란 하나를 배워서 열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가르쳐주고 하나만 알아도 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주위도 자세히 봐야 한다. 이것이 융합이고 통섭이고 창조이다.

무엇이든 자세히 보아야 알게 되고,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지식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인격이 완성된다. 지식이 인격이 될 때 인성이 가꾸어지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게 하여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을 가르쳐서 그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소통으로 가는 길이다.

▼ 3기 2회차 김용택 시인



◀ 3기 1회차 이상벽 방송인



▶ 3기 3회차
이시형 이사장



2012 소통아카데미 3기 3회차 / 6월 27일(수)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 이사장

무엇이 한국을 정상으로 달리게 하는가

대한민국은 어느 하루도 같은 날이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술, 자본, 자원이 없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서구에서 300년이 걸렸던 산업화를 우리는 40년 만에 이루었다. 88 서울올림픽에 이어 2002 한일월드컵을 개최했고, 세계 수출 10위권, 국가경쟁력은 일본을 앞질러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성숙도에서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문화적 성숙도가 떨어지고 열등감, 패배감이 자라나면 국민들의 자존감이 없어지고 품격이 떨어진다. 나라도 국격이 탄탄해야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아무 것도 없는 한국에 기적을 일구어냈을까? 진취성(기마, 유목민족의 뿌리), 신명성(무교적 기질), 양뇌성(좌우뇌형 성향), 근면성(부지런함), 상향성(세계적 교육열), 긍정성(설마! 하는 낙천성), 유연성(융통성, 통찰력, 기민성, 직관) 등이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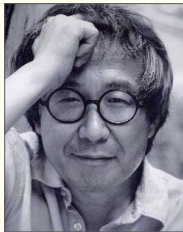
이제는 진정한 풍요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품격을 논해야 하는 지금 시대에는 내적인,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소통이 화두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자연과의 소통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도 결국은 자연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자연과 소통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홍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이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중화제는 없다.

경제적 성장에 이어 이제는 정말 국격과 품격을 올려야 한다. 삶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열정을 갖고 밀어붙이되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세계**



[회원 소식]

-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 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의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회 '오래된 미래'에서 자신의 개인 작품전을 개최하였다. 옛 서울역 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이번 작품 전시회는 서울역 복원공사에서 나온 폐목을 이용한 미니어처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 **전순표 ㈜세스코 회장**은 지난 5월 7일 동국대학교 개교 제106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을 수상하였다. 전 회장은 농학과 53학번의 직계 3대 이상 및 4촌 이내 가족 중에는 동국대 동문이 10명으로, 2010년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기록을 넘어섰다. 아시아 최대 해충방제회사인 세스코를 경영하고 있는 전 회장은 제24대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모교에 7억 5000여 만 원을 기부하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운영하는 **CS리더스 클럽(위원장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고문)**은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제5기 CS 윈-윈 서비스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KB국민은행 등 18곳이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조태권 광주요 회장**은 지난 5월 9일과 16일, 한국경제TV '왕종근 이세진의 성공파트너' 성공 시크릿에 출연하였다. 전통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기업가이자 우리 문화 지킴이로 활동하는 조 회장은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이사직을 맡아 우리 문화를 본격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미국에서 '한식세계화를 위한 만찬'으로 또 한 번 전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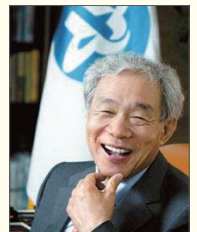
-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2012 마이 크로소프트 CEO 서밋'에 참가했다. 이 포럼은 MS사가 매년 전 세계 정상급 리더 100여 명을 초청해 국제경영 트렌드, 경제 관련 이슈 등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다양한 고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주최자인 빌 게이츠를 비롯해 워렌 버핏, 토니 블레어 前 영국 총리,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어 회장은 최근 잡코리아와 대학생 매거진 <캠퍼스 잡앤조이>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달고 싶은 CEO' 설문에서 달고 싶은 CEO 금융(은행, 지주)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다.



-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이데일리TV에서 주최하는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하여 "새로운 레저스포츠로서의 경마, 승마 외에 새로운 농가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말을 이용한 가공 제품의 생산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제33대 마사회장으로 선출된 장 회장은 2008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장관직을 수행한 바 있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지난 5월 1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에서 특별상인 '평생학습 사회공헌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앞서 방통대는 개교 40주년을 기념해 13일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나눔의 기쁨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기업은행(행장 조준희)**은 지난 5월 22일 1억 5000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3년 만기 채권 발행을 성사시켰다. 기업은행은 이번 스위스프랑 채권을 위해 크레디트스위스와 도이치증권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발

행을 추진하였다. 한편 이번 채권
은 만기된 채권의 차환용으로 쓰
일 예정이다.



- **이재옥 중앙F&S(주) 대표**
이사는 지난 5월 23일 수
원시 이의중학교에서 JA
Korea에서 실행하는 청소
년 대상 경제특강을 진행
하였다.



- **대한노인회 중앙회(회장 이심)**가 주최하고 충
북 제천시 노인회 지회가 주관한 '대통령기 전
국 노인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5월 25일 제천
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매년 전국의 각 시
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선발된 68개 팀 476명
의 선수들과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임직원과 심판진 등 모두 2,000여
명이 참여하여 침묵과 화합을 다졌다.



- **(주)대성(회장 김영대)**은 지
난 5월 26일 신도림 디큐
브시티에서 에콰도르와
남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 '한
국-에콰도르 우정의 주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행사는 대성과 에콰도르
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에콰도르 전통음악 연주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김영대 회장은 지난해 에콰
도르 정부로부터 명예영사관 문장(紋章)을 받은 바 있으며, 2006년부터
에콰도르 명예영사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의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다.



- 인간개발연구원 강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상훈 방송작가 / 서울종합
예술학교 교수**는 지난 6월 2일 자기계
발 놀이터 '독킹'을 정식 오픈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8일 오픈 기념특강을 진
행한 신 교수는 오픈 인사말에서 "독킹'
에 오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추억과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신 교수를 비롯해 KBS 성우
출신 문일옥, 트로트 강사 문영 등이 오픈강연에 나섰다.



-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
발원에서 제10회 서울시 의사의 날 기념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행
사는 2012년 서울시의사회 회무 방향을 제시하고, 각구 의사회 및 서울
시의사회에 새롭게 참여한 임원들에게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를 생각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의사회 32대
신임 집행부뿐 아니라 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 역시 집행부가 새
로 구성되면서 서울시의사회 신임 이사진과 감사, 의장단, 전문위원, 각
구 의사회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서울시의사회의 주요 회
무 추진방안을 듣고 의료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 **성연미 봄온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지난 6월 8
일 프레스센터에서 前 야구선수 양준혁, 배우
정일우 등과 함께 '2012 제2회 행복나눔인' 장
관상을 수상하였다. '행복나눔인'은 나눔을 실
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 사람들을 발굴, 시상해
명예감을 기리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성연미 대표는 청량리 파파센터, 남독봉사활동, 장애인
방송인 육성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왔다.



- **정태익 前 러시아 대사**가 지난 6월 11일 단국대학교 우석 한국영토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겸 석좌교수로 취임하였다. 한국영토연구소는 최근 국제적으로 국가 간 육지·해양 영토의 관할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우리 영토의 범위와 경제 등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단국대가 우석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영토 범위와 경제 등에 관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정책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 개설하였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지난 6월 18일 (사)국제문화예술협회에서 주최하는 암행어사 박문수 황금마패상에서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공한수 사장은 사업뿐만 아니라 시와 사진 등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힘쓰고 있다.



- **최재형장학회(회장 김창송)**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9일 CTS아트홀에서 '최재형장학회 창립 1주년 기념 친선음악회'를 열었다. 최재형장학회는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처럼 웅혼한 대륙의 정기를 온전히 안고 있는 최재형 선생의 유지를 널리 선양하고, 고려인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문의 : (사)동북아평화연대 최재형장학회(Tel. 1688-7050)

-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은 최근 자외선과 적외선을 동시에 차단하는 'UV-IR BLOCK'으로 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기술은 피부노화의 방지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무기분체의 광학적 성질인 흡수, 산란, 반사원리를 이용해 피부 광노화의 원인인 적외선은 반사하고, 자외선은 흡수 및 산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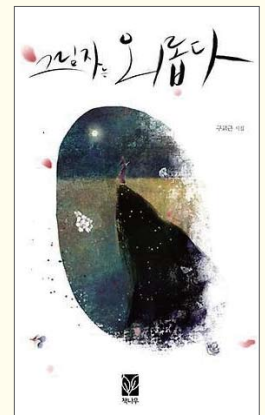
- **한국아쿠르트**가 목초를 먹인 소에게서 뽑아낸 우유 '내추럴플랜(Natural Plan)'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양질의 우유를 얻기 위해 엄선된 750여 마리의 젖소에서 하루 2만 4,000개(930ml 기준) 분량만 한정 생산되며, 일반 우유 대비 오메가3의 함량이 약 2.6배 많다.



- **롯데호텔(사장 송용덕)**은 롯데호텔 서울 광장에 야외 가든파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쿨팝스 프라자를 개장하였다. 쿨팝스 프라자는 야외에서 시원한 생맥주나 와인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소로 DJ의 음악 선물과 작은 인공 폭포, 바위들로 꾸며진 연못 옆에는 하얀 테이블과 운치 있는 비치파라솔을 비치해 도심 속 이색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 **구교근 한마음특허사무소 소장**이 최근 <그림자는 외롭다>라는 시집을 출간했다. 구 소장은 "꿈임없이 사유하고 연민하던 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풀려 나오자 세상은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고, 모든 평범한 것들이 특별해졌다"고 밝힌다. 이번 시집에 대해 '시인 구교근의 언어는 섬세하고 편안하다. 모든 시에 이야기가 녹아 있고, 연민이 숨어 있으며, 시인의 목소리는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의 세계가 울고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다독이는 듯하다. 시인의 목소리는 어머니였다가, 아버지였다가 때론 사랑하는 임이 되기도 하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추억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조인스HR(대표이사 가재산·양병만)**이 제45회 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장수기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제: 글로벌 장수기업의 핵심은 '인재'다!
- 일시: 2012년 7월 12일(목) 10:00~17:20
- 장소: 르네상스 서울호텔 4층 루비 & 사파이어홀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 출구 또는 선릉역 5번 출구)
- 참가비: 30만 원(인간개발연구원 회원 20% 할인)
- 문의: Tel. 02-890-0840, 02-890-0815

[신규회원]

■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법인회원)**

미래에셋은 글로벌 투자 전문으로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뮤추얼펀드를 도입한 미래에셋 도전의 역사는 한국 자본시장을 넘어 세계 자본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2003년 홍콩법인을 설립한 이래 현재 세계 12개국에 진출하여 해외 판매 자산 6조 원을 넘겼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미래에셋생명빌딩
- 전화번호: 1588-0220
- 홈페이지: <http://life.miraeasset.com>



■ **최성모 ㈜에이플러스에셋 센터장(개인회원)**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는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종합금융컨설팅사이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143-40
현대스위스타워 19층
- 전화번호: 02-6383-7755
- 홈페이지: www.aplusassetadvisor.com



■ **김원자 마리하우스 대표(개인회원)**

마리하우스는 2006년 설립된 실내 인테리어 소품, 침구, 커튼 제작 및 도소매 전문 업체이다. 김원자 대표는 한양대 CEO과정을 수료했으며, 정성노인의집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4-3 1층
- 전화번호: 031-719-6981
- 홈페이지: www.maryhouse.co.kr



■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개인회원)**

쉐리코리아 컴퍼니는 1996년 설립된 외국 투자기업으로 침대 매트리스 수입,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윤 신임사장은 나이 키스포츠킨코리아, 몽블랑 브랜드매니저, 뉴발란스 등을 거쳐 버켄스탁의 영업이사를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썸소나이트코리아의 대표이사 및 상무로 재임해왔다.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0-13번지 소소헌빌딩 4층
- 전화번호: 02-3438-7652
- 홈페이지: www.sealy.co.kr



■ **김인환 GS자이 지식산업센터 부장(개인회원)**

김인환 부장은 현재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하는 GS자이 지식산업센터 분양팀에서 근무 중이다. 평소 독서와 세미나참석을 취미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故 김흥식 장성군수의 책을 보고 인간개발연구원을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다.

-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52-7번지 강서한강자이타워
- 전화번호: 02-2639-8062

[소모임 소식]

■ **이중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은 6월 19일 오후 이시원 (주)부천 회장의 회사(평택공장)를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한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7월 모임은 30일 '설국'에서 갖기로 했으며, 10월에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회원들과 함께 일본을 여행하기로 했다.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는 6월 26일(화)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 3층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G-아르체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임종렬)** 7월 정기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2년 7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명동 로얄호텔 21층 뷔페 '스모가쓰'
- 문의: 총무 임종렬(H.P. 010-3241-0197)

■ **골프모임 인경회(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 7월 모임은 본원이 주최하는 '2012 제주CEO섬머포럼' 기간 중 '인경회 회장배 골프대회'로 대체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회장 박춘봉 / 총무 정지환)**은

6월 11일 '손광성의 수필쓰기' 수업으로 정기모임을 가진데 이어 7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한편 에세이클럽은 관심 있는 회원들의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 일시: 2012년 7월 9일(월) 18:30~21:00
- 장소: 문학의집 서울
- 문의: 정용달 홍보팀장(Tel. 02-445-1949)



[연구원 소식]

■ 매주 목요일 개최되고 있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해 회원 및 관계사에서 도서를 협찬해 주고 있다. 협찬에 응해 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김중수 기림산방 원장 도서 10권
〈인생고사〉
- 심재석(삼양미디어 사장) 도서 20권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통하는 심리학〉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세계 지도 지리 이야기〉
- 명진출판사 도서 10권
〈통섭의 식탁〉
- 김봉준 주5일넷 대표 도서 10권
〈우선은 휴식이 필요해〉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일양약품(주)	정형식 명예회장	7월 1일
세비앙주식회사	윤용로 대표이사	7월 1일
眞德建設(株)	최원병 회장	7월 4일
(株)태창플랜트	양대길 회장	7월 7일
(株)서울문화사	차영준 회장	7월 7일
KCTC	우덕성 회장	7월 20일
일우선박(주)	송언기 회장	7월 27일
썬테일러	서정권 사장	8월 1일
영우통상(주)	류인식 회장	8월 14일
농협중앙회	손귀환 회장	8월 15일
(株)아성냉기	심상기 회장	8월 23일
Big Dream & Success	공한수 사장	8월 27일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

인간개발연구원 멤버십은 건강한 습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서비스 안내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 간행물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 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 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 (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료, 유료)	○	○	○	○			
	조찬세미나 강연 CD 매주발송 정기간행물 및 도서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제외)	별도구매	
온라인	교육컨설팅(명사섭외, 연수프로그램기획 등)	○	○	○	○			정기간행물 발송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 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 원	390만 원	290만 원	1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 경영자교육팀 T. 02-445-1948



한여름 무더위도 뛰어넘는 전국의 평생학습 열기

[교육컨설팅 소식]

■ 본격 무더위 속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5~6월 160회 진행



일 년 중 가장 뜨거운 7~8월,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이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대구 달서구의 '행복 아카데미'는 100회를 맞이하여 백정선 TNV어드바이저 대표를 모시고 자산관리 특강을 듣는 한편 재무상담 및 컨설팅 행사를 진행해 참가

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같은 날 용인시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강화중 가정경영연구소장을 모시고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와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오종남 전 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를 모시고 '참행복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정읍시에서는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가족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업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5월 17일 장성에서는 김수공 농협 농업경제 대표를 모시고 '그린비전21과 장성협동 이상촌 건설'에 관한 논의시간을 가졌고, 함안군과 함안군에서는 김재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모시고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의 로드맵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지난 5~6월 동안 전국 60여 개 지자체에서 160회에 이르는 교육이 진행되어 다가오는 무더위를 무색하게 하는 배움의 열정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 평생학습조직 구축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기관 정기교육



'평생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조직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교육 사업이 5~6월을 맞아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5월 2일 정관용 교수를 모시고 소통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고, 삼성생명과 수협, 크루셜텍에서는 노병천 한국전력리더십연구원 원장을 모시고 손자병법과 리더십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동양석판에서는 사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유인경 경향신문 편집부 부국장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한국전력 울산지부에서는 이현 인사이트컨설팅 한국지사 대표를 모시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다르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리바트에서는 객숙철 CnE 혁신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이기는 조직의 10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고, YPP에서는 윤태익 인경영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JDC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는 5~6월에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대학 등에서 강연이 진행됐다. '제주시 글로벌아카데미'에는 로버트 할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김민영 왕호떡 회장, 홍광수 DISC연구소 소장,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손석춘 건국대 교수 등이 강연에 나섰으며, '서귀포 글로벌아카데미'에는 윤영곤 OKTA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원장, 심윤섭 유어파트너 대표, 김해남 김해남한의의원장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다. '대학생 글로벌아카데미'에는 강규형 3P자기경영연구소 대표,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 신상훈 방송작가, 이예진 아나운서 등을 모시고 도전과 성공, 젊은이들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장성군, 노인복지 행복지수 우수 지역



장성군(군수 김양수)이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역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행복지수를 높여 지자체 노인복지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를 넘는 장성군은 노인 복지시책으로 ▲경로당 반찬값 지원 ▲노인 목욕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창원시, 세계 속 우뚝 선 '창원시 환경수도정책'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Rio+20(UN 환경 개발회의) 공식행사로 열린 '제1회 세계녹색정상회의'에 참석해 '창원시의 미래 20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발전방안 및 전략'을 발표해 참석자로부터 갈채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본

발표에서 창원시의 환경수도 정책의 탄생 배경과 그동안 추진성과를 설명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는 데 전 세계인이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 예천군,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

'곤충과 함께 여는 친환경 세상' 주제로 7월 28일부터 23일간 열려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곤충세계의 신비로움과 미래 곤충산업의 비전을 보여줄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오는 7월 28일~8월 19일까지 예천읍 주행사장과 상리면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곤충 전문 체험박람회로 치러질 이번 행사는 '곤충과 함께 여는 친환경 세상'을 주제로 곤충 전문 엑스포에 걸맞게 차별화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곤충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연체험형 엑스포로 꾸며진다.

주제전시관에는 전시프로그램으로 곤충 산업관, 예천관, 메인폰서존, 곤충 3D 영상관이,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살아있는 곤충 기획전, 곤충 트릭아트전, 각종 만들기 체험과 놀이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곤충생태원에는 곤충생태체험관을 비롯해 곤충정원, 야외체험장, 벌집테마원, 나비관찰원 등 자연 속에서 곤충탐구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상상의 곤충나라 테마파크 구현으로 엑스포의 전문성을 높이고 쾌적한 관람환경과 자연형 전시·체험 공간 조성, 곤충체험과 학습, 축제가 함께하는 에듀&엔터테인먼트 엑스포로 치러질 전망이다.

군은 이번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생태체험학습을 주제로 하는 곤충 전문 엑스포인 만큼 교육적 가치와 관람 만족 극대화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유일의 곤충 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예천군은 자연의 숨은 비경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친환경과 곤충의 고장으로써 천혜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인 화룡포와 낙동강의 정취가 살아있는 삼강주막, 세계를 석권한 양궁의 고향으로 잘 알려졌다.

■ 구미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최근 경북도가 보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구미시는 2010년, 2011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1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다. 한편 시는 가상계좌시스템 도입, 세입 통합시스템 구축 등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 중이다.

■ 경주시, 영남 경주 관광의 또 다른 매력



경주시(시장 최양식)의 양남 해안에 위치한 '신이 빛은 조각품' 같은 주상절리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상절리의 신비

로움을 말할 때 단연 제주도 해안을 꼽지만 길이 10~20m의 돌기둥이 해안 1.7km에 걸쳐 솟아있는 양남 해안 주상절리 또한 그 아름다움이 제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에 경주시는 양남 해안 주상절리 중 누워 있는 곳에 대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2 JEJU CEO SUMMER FORUM

세상을 움직이는 발견, 융합의 창으로 다시 보다

- 일정 2012년 7월 29일(일)~8월 1일(수) 3박 4일
- 장소 제주 롯데호텔
- 주최 인간개발연구원 /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 문의 Tel. 02-445-1846~7

경영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 세상에 담을 키워드를 함께 고민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신 CEO 여러분, 창조적 영감과 열정으로 미래를 지휘할 CEO 여러분들을 최고의 지혜여행, 2012 제주 섬머포럼에 가족과 함께 모십니다

2012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 주류 경제학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대신에 심리학, 생물학 등을 접목시킨 행동 경제학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이 무너지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상은 넓다'라는 인식하에 글로벌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의 경영 전략의 주요 화두는 '융·복합'입니다.

이에 이번 섬머포럼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를 맞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차별화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창의, 혁신, 개혁, 융합, 통합, 글로벌 등 다각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융합의 창으로 다시 보다'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섬머포럼은 가족이 함께하는 포럼구성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균형잡힌 인생의 성공을 위해 3박 4일 동안 가족의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비전 여행에 함께하셔서 비전과 경영, 행복한 휴식을 동시에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일 차 PROGRAM 7월 29일 (일)

세상을 여는 창

일정	프로그램
13:00~15:10	참가자등록 및 체크인
15:00~15:10	[환영인사]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윤계섭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15:10~15:40	[개회사] ●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15:40~16:40	[기조강연] ● 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 격동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16:55~17:55	[인재의 창] ●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창의적 인재, 어떻게 키울까?
18:00~20:30	● <환영만찬> 참가자 친교한마당 ● <축하공연> 한여름 밤 푸른 제주 낭만 콘서트!

2일 차 PROGRAM 7월 30일 (월)

경연을 만나는 창

일정	프로그램
7:00~14:30	2012 제주CEO섬머포럼 골프대회 제주 자유관광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30~15:30	[경영특강 I] ● 조태권 광주요 회장 한식 세계화 20년 '조태권의 문화보국'
15:45~16:45	[경영특강 II] ● 강성욱 GE코리아 총괄사장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전략
17:00~18:00	[경영특강 III] ● 윤석철 한양대 석좌교수 기획인식과 관계창조
18:15~19:30	[해외경영특강] ● 짐 사이델 미국 커닝햄그룹 회장 문화를 팔아라-디즈니랜드와 라스베이거스의 문화혁명 이야기
19:30~	개별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3일 차 PROGRAM 7월 31일 (화)

인문학과 융합의 창

일정	프로그램
7:00~14:30	인경희 회장배 골프대회 / 제주 자유관광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30~15:30	[건강의 창] ● 김오곤 화성행궁명인 한의원 원장 7대 한의사 뽕짝 하준의 CEO 건강비법 [재테크의 창] ●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 재테크 고수에게 배우는 인생 100세 설계
15:45~16:45	[문화의 창] ●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 한국 걸그룹 계보학- 저고리시스터부터 소녀시대까지 [전략과 브랜드] ● 박항기 (주)메타브랜딩 대표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 기업의 브랜드 대응 전략은?
17:00~17:50	[예술과 리더십] ● 박대성 화백 예술혼이 시대를 뛰어넘는 작품을 만든다
18:00~18:50	[문학과 리더십] ● 한승원 소설가 시대를 일깨운 역사의 웅대한 산! 우리는 왜 250년 전의 다산을 그리워하는가?
19:00~20:00	만찬 & 골프대회 시상식
20:00~21:00	● <퓨전 콘서트> 포스오페라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여행

4일 차 PROGRAM 8월 1일 (수)

미래를 만나는 창

일정	프로그램
7:00~9:00	아침식사 및 체크아웃
9:00~9:50	[특별강연]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의 상생의 미래, 함께 가야 멀리 간다
10:00~11:00	[미래의 창 토론회] ●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 염재호 고려대 교수 과학칼럼니스트와 사회과학자의 융합토론
11:10~12:00	[미래경영] ●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21세기 위기를 지배하라-마키아벨리 군주론
12:00~12:10	[클로징리마크] [폐회인사]
12:20	제주공항 이동

제21회 '행복중심 수요특강' 5월 17일(목) 친절이 경쟁력이다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 사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청(군수 이석래)과 본원이 2006년 개설한 평창아카데미는 현재 '행복중심 수요특강'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평창군민), '찾아가는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평창군민),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현장학습' (평창군민),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청소년특강' (청소년) 등 공직자와 시민,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되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소양함양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평창군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5월 17일 '친절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2012년 5월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신 유태식 MK그룹 부회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진동현(jd85@khdi.or.kr)

형님과 함께 주유소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던 시절 지인의 권유로 택시 10대를 인가받아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60년이였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그저 10대의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24명을 채용했는데, 옛날 일본의 택시 기사들은 아무 통보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무지에서 시작한 택시 경영

이 사람들은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저 본인의 손해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다. 물론 경영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택시회사를 하기 전 주유소를 경영했을 때는 월급제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성실하게 잘 나와서 일을 했었다. 그러나 택시회사에서는 내일 쉬려면 미리 신청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나오게 될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라고 해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오랫동안 택시회사를 경영한 분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그분 말로는 택시 경영에 필요한 24명만 채용하고, 택시 기사들은 신용할 수 없으니 35명 정도를 채용해서 일찍 오는 순서대로 차를 내어주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차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 택시 경영이었다. 그런 상식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우리는 실망했다. 이것을 완전히 바꾸든지 그만두든지 결정했어야 했다. 결국 우리는 직원들이 출근을 잘 하지 않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24명 직원들의 가정을 방문해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방 한 칸 겨우 빌려 5~6명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중 한 가족은 방을 빌릴 돈도 없어서 다리 밑에 판자로 집을 만들어 살고 있었다.

나는 내 회사의 종업원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는 주택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지만, 택시회사를 하는 한국인에게 쉽사리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없었다. 결국 이는 지인들을 통해 겨우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건축업자들이 46채의 단독주택을 지어서 한 채에 350만 엔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집에 우리 직원들이 살 수만 있다면 무척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은행 융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 기사에게 350만 엔이라는 돈은 너무 큰돈이었다.

그래서 건축회사와 주택을 일괄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10% 할인을 받고, 회사가 50만 엔씩 직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도 나머지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었다. 결국 은행에 찾아가 은행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직원들의 월급에서 갚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자와 원금을 합쳐 한 달 2만 3천 엔만 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문제는 당시 기사들의 평균 월급이 7만 엔이었는데, 여기에서 월 2만 3천 엔을 부담하는 것 역시 기사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두 명의 기사가 한 대의 택시를 두고 차고지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교대해서 운행하는 것이었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렇게 한 달 연장 근무를 해서 얻은 수입으로는 집세를 내고, 평균 수입으로는 평소대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무단 지각, 무단결근,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 생활이 안정되고 경영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오히려 회사의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 효과도 더 높아졌다. 그리고 MK택시가 보통 택시보다 요금이 더 저렴한데다가 직원들이 친절하니까 손님들은 MK택시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기사들이 불쌍해서 자선 사업으로 집을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거를 안정시켜주고, 교육해서 친절한 직원으로 만들면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회사의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교통방송국에서 개국기념 방송을 제작한다며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MK택시는 직원들의 월급과 보너스를 그렇게 많이 주고 집까지 사주면 경영이 되는



유태식 부회장

1936년생으로 일본 입법관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19세 때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1960년 친형인 유봉식 회장과 함께 택시 10대로 MK택시를 창업해 세계 제일의 친절기업으로 키웠으며, 현재 택시, 정유, 은행 등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했다. 일본 대학생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일본 재계에서 성공한 경영인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냐는 질문이었다.

내 대답은 이랬다. “집을 사준다는 것은 소문이 잘못 나간 것이고, 집을 사도록 지원해준 것이 맞다. 그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고, 보너스와 월급을 많이 주면 회사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택시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늘어나면 그 재산은 모두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다.”

MK의 경영자는 정말 욕심쟁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욕심쟁이라면 종업원들에게 적은 월급과 보너스를 줘서 본인들의 주머니에 채우려고만 하겠지만, 우리와 같은 큰 욕심쟁이는 월급을 많이 주고, 보너스를 많이 줘서 회사를 키워서 그 회사를 갖는 것이다.

친절이 곧 경쟁력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50년 전 일본의 택시 기사들도 손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의 MK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택시 기사들의 인식은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무슨 인사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택시를 타는 손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정신을 교육하는 데만 50년이 걸렸다. 그래서 만든 것이 택시 내의 인사나누기 운동인 'MK 운임 운동'이다. 손님이 손을 들면 차를 멈추어서 “MK택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000입니까?”라고 복창해서 손님을 안심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오늘 운전사의 이름은 000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도록 했고, 손님이 내릴 때에는 “감사합니다. 잊어버린



물건은 없으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도록 교육했다. 이 인사는 우리 MK택시의 운임 안에 포함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해야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에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진행했고, 인사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요금을 돌려주고 그 직원을 찾아 재교육을 했다. 실행 초기에는 인사하는 기사들을 보고 손님들이 놀라서 택시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일도 많았다. 승객들마저 인사하는 택시를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했다. 결국 나중에는 손님들이 친절한 MK택시만 타려고 했다. 특히 여성들이 밤에 혼자 갈 때는 MK택시만 타라는 얘기도 있었다. 인사가 변화를 일으켰고 시민들은 MK의 팬이 되었다.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어느 날 지체 장애인에게 편지가 왔는데, 외출할 때 전철과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마저 잘 안 태워준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받고 장애인들도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사 교육을 했는데, 동일한 요금에 장애인들은 시간도 더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기사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지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태우기 위해 교통부에 장애인들을 태울 경우 요금의 10%를 감면해달라는 청원을 넣었다. 일본 역사상 운수업이 손님을 태울 때 할인해준다고 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때도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가 심했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태우는 일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물어보면 모두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었다. 결국 좋은 일일수록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싫은 일이 있어야 한다. 좋은 일이 있을수록 눈물이 있어야 하고 고통이 따라야 한다.

장애인을 태워 10%를 할인해주는 것은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매번 있는 일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홍보가 되어 모든 장애인들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MK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수익이 더 늘어났다.

친절 대한민국

나의 소득이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수록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일본의 25만 대 택시 중 교토의 MK택시가 처음 시작한 것이다. 종종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배타적인 교토에서 성공했느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이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역올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국 사람인 것이 감사하다고 대답한다.

한국의 식목일과 비슷하게 일본에도 식수제라는 것이 있다. 일본의 식수제는 1년에 한 번씩 이틀 동안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천왕 부부와 국무장관, 그리고 내빈들이 진행한다. 1991년 식수제 때 교토에서 경도부 지사와 운영위원장이 내빈들을 MK택시로 수송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전까지 일본 국가 행사 역사상 한 번도 택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교토에서 택시를 이용한다는 발표로 이틀 동안 하루 100대씩, 200대의 택시를 동원해 내빈들을 수송한 일이 있었다. 이 내빈들이 돌아가서 회사로 수많은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항으로 7년 동안 선정되었다. 인천공항이 최고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70개 공항 중에서 7년 동안 최우수로 뽑힌 경우는 없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서비스 정신이 인천공항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기에 가능하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가장 유명한 택시회사를 만들었다. 평창군이 작지만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놀랄 만큼의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재민**



마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As a Man Thinketh(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불후의 명작을 쓴 제임스 알렌은 '몸은 마음의 종'이라고 했다. 이 책을 읽고 제임스 알렌의 팬이 되었고, 그는 영원한 나의 멘토가 되었다. 인간의 신비스러운 몸은 마음이 시킨 대로 행동한다는 대목에 나의 마음이 꽂힌 것이다.

제아무리 명성을 날리는 설교자가 많은 말을 해도 청중들은 제각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백화점이 만발한 꽃밭에서도 사람의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꽃만 보게 된다. 백화점에 수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도 소비자는 자기의 눈에 꽂힌 것만 찾아 고르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정설이다.

인생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성서는 "항상 기뻐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찾고자 하는 행복의 비결을,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淸心事達(청심사달,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대혼란의 시대이자 대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1세기를 맞는 2000년 초반 인류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게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언을 믿고 희망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당시 전 세계인의 들뜬 모습을 회상하면 씁쓸하기만 하다. 국민소득 2만 불에 인구 5천만이 되는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이 2012년 6월 23일에 '2050클럽'의 7번째 국가로 가입되었다고 모든 매스컴에서 떠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의 악몽에 시달려야 하며,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폭력,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질곡에서 공공거리며 살고 있는가. 4.11총선에서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꺾고 절망으로 추락하게 하는 정치적 현상들은 12.19 대선을 향해 마치 대중몰이를 하듯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실망스럽고 준비 안 된 모습의 혼돈스러운 정치현상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정치지망생들의 정직성 결여에서 답을 찾는다면 어설픈 진단일까? 정치지망생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래전부터 2012년은 'World Shock'이라 부를 만큼 대위기의 해, 대재난의 해로 예고되어 왔다. 실제 전 세계가 위기와 재난에 빠져있음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위기와 재난에서 탈출하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정답(행복 찾기)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인간관계, 경제문제, 직업 찾기, 배우자 찾기, 자녀교육, 심지어는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생문제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불행할 호소하고, 참다못해 자살하고, 이혼하고, 자폭하며 사회적 폭력으로 치달는 것일까.

석가모니 부처는 마음을 비우는 자기수련에 정진한 후 각성하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위대한 진리를 터득했다. 최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화제작으로 잔잔한 정신혁명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헤민스님의 말을 적어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마음의 렌즈는 갖가지 색으로 물이 들어요. 마음이 기쁜 상태라면 렌즈 자체에 기쁨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은 당연히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외로운 상태의 렌즈를 하고 있으면 세상은 참으로 외롭게 보여요. 이처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아름다운 일, 더러운 일이 본시 없는데,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세상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렌즈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사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늘이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마음의 위대한 창조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운명(인생)은 결정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당신의 행복은 확실히 약속될 것이다. 정직해야 한다. 정직성을 잃으면 마음은 자연스러운 기능과 힘을 상실하고 만다. **장만기**



청색기술이 희망이다

일본의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아프지 않은 주사, 곧 무통주사를 개발하기 위해 모기에 관심을 가졌다. 모기는 사람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피를 빨아먹는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모기의 주둥이는 주삿바늘보다 끝이 훨씬 가늘고 길게 생겼다. 모기의 바늘처럼 생긴 주삿바늘을 만들면 사람이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일본의 의료기기 회사는 모기 주둥이를 흉내 내서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주삿바늘을 만들어 대박을 터뜨렸다. 특히 날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 초반부터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을 창조하려는 과학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신생 분야는 생물체로부터 영감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물영감(bioinspiration)과 생물을 본뜨는 기술인 생물모방(biomimicry)이다. 생물영감과 생물모방을 아우르는 용어가 해외에서도 아직 나타나지 않아 지난 5월 하순 펴낸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자연중심 기술'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였다.

자연은 위대한 발명가이다. 지구상의 생물은 38억 년에 걸친 자연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갖가지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살아남은 존재들이다. 이러한 생물 전체가 자연중심 기술의 연구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넓다. 이를테면 생명공학·생태학·나노기술·재료공학·로봇공학·인공지능·인공생명·신경공학·집단지능·건축학·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가 거의 망라되어 있다.

21세기 들어 생물영감 또는 생물모방이 각광을 받게 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나노기술의 발달이다.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나노미터, 곧 10억 분의 1미터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물을 본뜬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마뱀붙이(게코) 발바닥의 빨판을 모방한 접착제, 연잎 표면의 돌기를 본떠 만든 자기정화 페인트, 모르포나비 날개의 비늘을 흉내 낸 옷감, 전복 껍데기의 구조를 본뜬 방탄 소재는 모두 나노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을 모방한 물질이다.

자연중심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파란 행성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하는 참신한 접근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연중심 기술은 녹색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녹색기술은 환경오염이 발생한 뒤의 사후 처리적 대응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자연중심 기술은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중심 기술이 발전하면 녹색경제의 대안으로 청색경제(blue economy)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6월, 청색경제 이론가인 벨기에의 군터 파울리(Gunter Pauli)는 2020년까지 10년 동안 '자연의 100대 혁신기술(Nature's 100 Best)'로 1억 개의 청색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례의 밑그림을 발표하였다. 이 100가지 사례들을 통해 자연의 창조성과 적응력을 활용하는 청색경제가 높은 수익과 부가가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규모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중심 기술을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을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제안한 바 있다.

청색기술이 발전하면 기존 과학기술의 틀에 갇힌 녹색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청색성장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터이므로 국내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전문가들이 최근 발족한 '청색기술연구회(<http://blog.naver.com/shrheey>)'가 주목을 받을 만도 하다. **이인식**

● 이인식 소장



1945년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이며, 과학문화연구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KAIST 겸직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과학 칼럼니스트 1호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 470편 이상의 고정칼럼을, 월간조선, 과학동아, 한겨레21 등에 160편 이상의 기명칼럼을 연재했으며, 2011년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월간지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제47회 한국출판문화상, 2008년 서울대 자랑스런 전자동문상을 수상했으며, <지식의 대융합>,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이인식의 멋진 과학> 등 40여 종의 저서가 있다.

LOTTE HOTEL JEJU

Enjoy a Summer of Fun!



Cool Summer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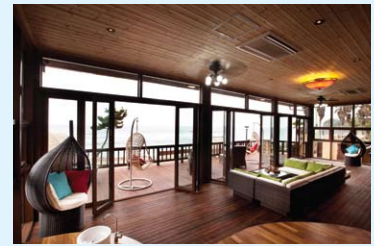
이국적인 낭만 **야외수영장**

야자수가 우거진 수영장에서
즐기는 휴식과 다양한 이벤트



한여름 밤 **비어 뮤직 파티**

인기가수 공연과 시원한 맥주,
밤 민속공연의 신나는 호반 축제



프라이빗 **비치라운지**

핸드 마사지와 마술쇼, 칵테일,
해변에서 즐기는 천상의 휴식

**Fun&Relax
Summer package**
(~ 9.15)

For Couple

디럭스 1박 + 2인 조식 + 월드 탭 비어 + 스페셜 사이드 디쉬

For Family

디럭스 패밀리 트윈 1박 + 3인 조식 + 월드 탭 비어 + 스페셜 사이드 디쉬

ACI 공항서비스
7년연속 세계1위

Skytrax 선정
세계 최우수공항

글로벌트래블러 선정
세계최고공항 6년연속 1위

비즈니스트래블러 선정
세계최고 공항상

에어카고워크 선정
올해의 화물 공항상

CAPA 선정
올해의 공항도시상

Route Development Group 선정
동북아 항공마케팅 최우수 공항상

뭔가 다른 공항, 인천국제공항

신속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공항,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나는 공항, 혼이 살아 숨쉬는 공항

세계 1등 공항 인천국제공항, 전세계 1,700개 공항과 경쟁하여
7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 공항분야의 노벨상 수상!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리더 공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여 가겠습니다.